

### 장애인시설 소책새마을 이천으로 이전 확정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중범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소책새마을이 새 보급자리를 찾았다.

승가원은 12월 20일 법인사무국에서 열린 임시이사회를 통해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에 위치한 소책새마을을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이전 절차는 마무리 단계다. 이천시로부터 토목설계 인·허가를 받는 등 시설 이전과 건축에 필요한 실질적 승인 과정은 끝났다. 13일 경기도청을 방문한 중범 스님은 손학규 경기도지사로부터 시설 이전에 대한 적극적 지지의사를 전달받기도 했다. 최종적으로 남은 것은 1월 15일까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하는 환경검토뿐이다. 이를 끝내고 나면 2005년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미진고시시설인 소책새마을은 그동안 원주에서 시설 증축을 위해 노력했으나 치악산 국립공원 내에 있어 관련법상 건물확장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승가원은 올해 4월에 3만여 평의 부지를 매입, 꾸준히 시설 이전을 준비해왔다.

김강진 기자

### 생명나눔 광주전남본부 독거노인 의료지원 나서

소아암 환우 투병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 지역본부(본부장 현장 스님, 이하 생명나눔)가 치매 독거노인을 위한 의료지원 사업에 나섰다.

생명나눔은 12월 17일 화순 전남대 병원에서 '치매독거노인 의료지원'을 위한 기금 지원식을 갖고 지원금 1800만원을 전남대 치매센터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기금은 생명나눔이 모금한 투병지원 기금과 보성건설의 후원으로 조성됐다.

본부장 현장 스님은 "노인인구 증가로 치매 등 퇴행성 뇌질환으로 고통받는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들의 만성 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사업을 전남대 치매센터와 공동으로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생명나눔은 2004년도 투병지원사업으로 6회에 걸쳐 총 8200만원의 기금과 현물증서 3500매를 소아암, 간암환우와 치매독거노인 등 20여명에게 지원했다.

이준엽 기자

## “불사 동참하게 해줘 고맙습니다”

인터뷰 | 신계사 복원불사 2억5천만원 쾌척 송정숙 보살



“금강산 신계사 복원 불사에 동참하게 해줘 고맙습니다.”

40여 년 동안 조경일을 하며 모은 2억 5천만 원을 쾌척하고도 ‘불사에 동참하게 해줘 고맙다’고 연신 절을 하는 보살이 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에서 ‘강씨농원’을 운영하고 있는 송정숙(선일행·78·사진)씨가 그 주인공이다.

송정숙 보살은 12월 20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신계사 복원 불사금 2억 5천만 원을 쾌척했다. 이에 대해 법장 스님은 “자기를 버릴 줄 아는 분”이라며 “이 분이야말로 진정한 보살”이라고 칭송했다.

송 보살이 신계사 복원 불사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연히 신문에서 신계사 대웅전 복원 낙성식을 한다는 기사를 보고 나서부터다. 20살이었던 1946년, 5남매 중 홀로 서울에 왔다. 끝내 고향(당시 강원도 호양군 호양읍)에 갈 수 없는 신계가 된 송 보살에게 그 기사는 예사로울 수 없었다.

지난 11월 신계사 대웅전 낙성식에 참가한 송 보살은 ‘여기가 바로 내가 불사할 곳’이란 생각을 했다.

송 보살의 이런 생각에는 남다른 아픔이 있다. 십여 년 전 큰 아들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당시 남양주 봉선사 운경 스님은 큰 아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송 보살에게 산신각 불사를 권유했다. 이후 이 말은 서원이 됐고 결국 신계사에서 회향을 하게 된 것이다.

송 보살에게 2억 5천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40여 년 동안 남자에게도 박찬 조경일을 하며 노후를 위해 한 푼 두 푼 모은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108 좌회 10년 계획을 세우고 정진했지만 7년째 다리에 무리가 와 포기할 정도로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송 보살은 “신계사 복원 불사에 노후대책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고마움을 표했다.

송 보살이 좋아하는 경전은 <반야심경>. 좋은 기도처 찾다니며 여러 경전을 외우기보다 가까운 절에서 <반야심경> 한번 봉독하고 청소거리 찾는 것이 마음에 편하기 때문이다.

평생토록 귀걸이나 목걸이, 시계조차 모르고 살았다는 송 보살. “살아있는 동안 이웃들에게 마음의 정이라도 주겠다”는 송 보살의 말에 조경일로 거칠어진 손이 겹쳐진다.

남동우 기자



조계종은 서울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 '아기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을 걸고 이웃종교의 기념일을 축하했다. 사진은 12월 20일 현수막을 걸기전에 조계사 스님들과 신도들이 현수막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사진=박재원 기자

##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법장 스님, 크리스마스 축하메시지

2004년 예수님오신날을 맞아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12월 21일 축하메시지를 발표했다.

법장 스님은 축하메시지에서 “예수님 탄생을 우리나라 2천만 불교도는 기쁜 마음으로 축하합니다”라며 “이번 성탄절에 우리 불교도는 생명의 평화와 화해가 증진해 지도록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온통 기쁨으로 넘쳐서 인류가 부흥케하고 감동의 춤을 추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원합시다”라고 밝혔다.

대구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도 21

일 천주교대구교구청을 방문, 우정의 표시로 화분을 선물하고 예수님의 탄생 축하메시지를 이문희 대주교 등에게 전달했다.

이문희 대주교는 최영수 보좌주교 등과 함께 지성 스님을 반갑게 맞아 대구교구청의 이모저모를 소개한 후 저녁식사를 하며 환담을 나눴다. 지성 스님과 이문희 주교는 2002년부터 부처님 오신날과 성탄절에 서로 방문, 종교화합을 담은 축하 메시지들을 주고 받고 있다.

남동우·배지선 기자

## 포항 종교편향 사태 일단락

정장식 시장 “불자·시민들께 죄송”

포항 종편위가 ‘홀리클럽 해체’를 결정한 포항 개신교계의 뜻을 받아들임에 따라 정장식 포항시장의 종교편향 사태가 일단락됐다.

포항 종교편향대책위원회(이하 종편위는 12월 20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 개신교계의 ‘기관장홀리클럽’ 해체가 국민전환용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난 일이라고 믿으며 지역사회와 종교화합을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종편위는 이어 “현재까지 정 시장의 사과에 부족한 점도 많지만 포항 개신교계에서 보여준 성의에 감사하는 뜻으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정 시장은 앞으로 오로지 52만 포항 시민을 위한 시장으로서 일 해 줄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정장식 시장도 이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자님들과 포항시민들께 죄송하며, 기관장 홀리클럽 해체를 대승적 입장에서 받아들인 것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편위는 또 그동안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에 대해서도 “불교계에서 불심양면의 피해가 적지 않으나 대차비 정산에 입각한 대응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해 취할 뜻을 밝혔다.

종편위는 종교간 화합과 교류를 희망하는 뜻에서 ‘2005년 신년하례식’을 종교간 합동으로 개최할 것을 이웃종교계에 제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종편위 공동위원장 법은 종문 스님 등은 정장식 시장과 사과와 화해의 약속을 했다. 종편위는 정시장 퇴진운동을 마감하고 공식적 종교편향을 감시하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배지선 기자

## 해인사, ‘가야산 환경백서’ 발간

법보종찰 해인사가 사찰환경보존과 수행환경보존을 위한 기본사업의 하나로 12월 20일 <가야산 환경백서>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가야산 환경백서>는 총 254페이지 분량. 해인사 교구환경위원회(위원장 중범)는 “가야산 해인골프장건설사업과 가야산국립공원 관통도로에 대한 환경침해사태를 바탕으로 가야산을 지키고, 지역의 환경보존을 위해 활동한 그간의 결과물들을 정리해 가야산 환경백서로 발간한다”고 밝혔다.

가야산의 환경현황, 가야산 해인사 사찰환경의 현황과 관리, 전통사찰 해인사의 공익가치평가, 가야산 해인사 사찰환경 사례, 종합 평가 및 결론 등 총 5부본으로 구성돼 있는 가야산 환경백서는 해인사의 사찰환경에 대한 종합평가와 관리 지침, 가야산 환경관리를 위한 문제점과 제안들이 조목조목 기술돼 있다.

<가야산 환경백서>에 따르면 가야산 해인사의 환경관리를 위해 △체계적 불사를 위한 장기계획 수립 △불사 시행시 환경성 검토 및 평가

△해인사 사찰환경 기본계획 및 해인사환경백서 마련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관리 △사찰환경의제의 수립 및 실천 △지역단체 및 전문가 그룹의 활용 △사찰내부의 자율적 환경관리시스템 정비를 제안하고 있다.

한편 해인사는 12월 2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형불사 논란을 빚고 있는 신행문화도량 건설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해인사 불사 계획 수립과 설계를 담당했던 이상해 성균관대 교수와

건축가 조성용 씨 등은 현대사회의 발달에 따른 대형 불사의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하고, 신행문화도량은 최대한 효율적이고 환경을 고려해 설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형불사의 문제점을 제기한 김동현 한국전통문화학교 석좌교수, 주강현 문화재위원, 정웅기 참여불교재단대 정책실장 등은 단지 친환경적 설계와 기술을 통해 친환경적인 불사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을 운영할 프로그램과 인력이 갖춰져야 대형불사의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웅기 씨는 “이번 문제를 통해 불사에 대한 불교계 문화를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신·배지선 기자

## 中 내년 3월 종교자유화

관련 조례 개정...포교·단체결성 등 허용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 앞둔 중국 정부가 종교 자유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11월 30일 중국 내

종교 활동에 관한 제426호 종교사무조례를 승인하고 2005년 3월 시행토록 했다고 차이나 데일리가 12월 18일 보도했다. 이번 조례는 중국

사회의 급격한 개방과 경제성장에 따라 새로운 종교적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지난 6년 동안 검토된 끝에 제정된 것이다.

이번 조례에 따라 종교모임들은 단체를 결성하고 포교행위를 하며, 종교 관련물의 출판·편집은 물론 종교 교육을 하는 등 사실상 종교에 대한 거의 완벽한 자유를 획득하게 된다. 또한 종교모임들은 자신 보호와 세금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종교를 강요하거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사회 통합을 해지거나 종교간 화합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도교의 일종으로 출발한 법륜공은 사교로 규정 돼 활동에 더욱 큰 제약을 받게 될 전망이다. 1994년 제정된 종교활동 장소 관리 규정은 폐지되지만 외국인 종교 활동에 대한 규정은 존속된다. 강유신 기자

# 한국불교 중흥의 문을 활짝 열어라!



▲ 조계사 중창불사 기본계획 조감도

## 조계사 중창불사 계획

힘들었던 한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듯이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도 새해부터는 한국불교 중흥의 희망찬 새 역사를 여는 조계사 중창불사를 시작합니다. 한국불교의 상징이자 근현대사의 역사적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도심속 빌딩 숲 사이에 초라하게 자리잡고 있던 조계사. 이제 조계사가 역사성과 정체성을 회복하고 불자들에게, 또 서울시민들에게, 더 나아가 세계인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기위한 한 발자국을 내딛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드는 우리의 자존심. 지금 한국불교의 모든 시선이 조계사로 모이고 있습니다!

- 1차 불사: 현재 진행중인 대웅전 보수공사 완료
- 2차 불사: 일주문불사 착공, 보제루 건립(신행 및 법회공간), 문화사업관 신축(전시,공연,문화시설) 극락전 해체 복원
- 3차 불사: 종각 재정부, 인사동과 조계사를 잇는 보행중심의 동선확보, 종무소 및 신도회관 리모델링
- 4차 불사: 만불보전 건립

불사동참안내 : 조계사 기도접수처 (Tel. 02-732-2115)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Tel. 02-732-2115 Fax. 02-720-1391  
http://www.jogyesa.org

